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유지나



다시 연말이다. 어떤 하루는 지루하고 진부하지만 한 해는 빨리 가벼워진다는 기이한 느낌이 엄습해온다. 여기저기 송년 모임이 열리고, 이 해가 가기 전 꼭 보자는 안부가 오간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 하나 떠오른다. 그런 이들을 다 만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상에 갇힌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 그래서 약속한다. '새해맞이로 만나자'라고.

지난 주말 친구들과 송년회를 했다. 살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사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다. 나도 그중 하나이다. 한 친구가 말했다. "편 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혼자 힘든 말인데도 모두들 명명이라고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혈연이나 가족이어서 매일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요지였다. "자식을 사랑할수록 멀리 떠나보내라"라는 옛 말에도 그런 취지가 숨어 있을 법하다.

'따로 또 같이'라는 관계의 미학은 살수

록 소중하게 다가온다. 오래전 만났던 알베르 까뮈의 말이 생생하게 가슴에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인생이란, 홀로됨과 같이함을 오가는 나뭇바" 까뮈의 '이방인'에 매혹됐던 시절이라, 정교한 시처럼 운율을 맞춰 논하는 삶의 철학적 관점이 멋져 무심결에 외어버린 말이였다.

### 따로 또 같이, 관계의 미학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표현이 '따로 또 같이'라는 삶의 기술의 핵심을 깨우쳐주는 화두로 작동한다. 까뮈의 말 한마디에 영감을 받아 실천하려는 지행합일 각오를 하는데 이십여 년이 걸린 것이다. "어리석은 나여!" 헛웃음이 나온다.

그런 와중에 영화 '클라라'를 보았다. 슈만과 브람스와 사랑했던 여자,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격렬한 로맨스, 영

화를 보기 전 내가 알던 전부는 이 정도였다. 그런데 실화에 기반 '클라라'를 보니 온갖 감회와 상념이 피어난다. 결혼제도로 가둘 수 없는 사랑. 따로 있으면서도 늘 같이 한 브람스와 클라라의 음악동반 로맨스. 우물과 광기를 일용할 양식처럼 겪어내야 했던 슈만과 클라라.

무엇보다 여자가 공적 존재가 될 수 없던 억압적 시대, 음악 로맨스로 구원을 모색했던 주체적 여성 클라라가 구사한 관계의 미학은 한 세기를 넘어 심장을 울린다. 영화화 만든 헬마 산더스 브람스감독은 브람스의 후손이자 70대 여성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감독 특유의 깊은 시선

이 잡아낸 인간 탐구는 '따로 또 같이'라는 관계의 미학을 낭만적 선율로 들려준다.

반세기 이상 분단 휴전국이라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건만 경제 선진국만 되면 우리만 따로 행복하게 살아가 보이더니, 글로벌 한국을 내건 남쪽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리하여 20대 전쟁세대가 탄생했다.

비상사국 전단이 내려진다. 먹고 살 것조차 없는 북쪽을 압박하니 특유의 버랑

글 전술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 게다가 율해가 가기 전 똥가를 날리겠다는 북쪽 경고에 불안과 우울함이 송년 분위기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분단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았던 20대 학생들은 이 불안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따로 또 같이"란 관계의 미학은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보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답장은 같이 못하더라도 연젠가 함께할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위안. 따로 있어도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삶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지혜. 이런 덕목은 개인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리라. 칼 세이건 원작의 영화 '로버트'는 지구 인류의 외로움을 외계와 함께하는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내는 천문학적 지혜를 보여준다. 북쪽을 중요하든, 훗날 통일 모국의 동반자로 보든 따로놀기로 대체할 안 된다는 교훈이다.

'같이함'이 없는 '따로'는 지구이건, 남한이건, 개인 차원에서건 외로운 자멸을 동반한다. '우주적 생명체 법칙이 남북분단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우둔한 중요감을 '따로 또 같이'라는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내기를 기원한다.

(동국대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졸속·부실 드러난 새해 예산 이대론 안 된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다. 60%가 넘는 국민이 이번 예산안의 처리가 잘못됐고,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한 여론조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의 졸속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서민복지 예산의 경우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 원 증액에 고사하고 한나라당이 '70% 서민복지'를 내세우며 약속한 양육수당 확대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추가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심지어 결식아동의 방학 급식비까지도 없던 걸로 했다. 자신들의 급조처조차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셈이다.

하지만 실제들의 지역구 예산은 알뜰히도 챙겼다.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에는 당초 정부안보다 1400억 원이 더 책정됐다고 한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이 의원 이름에 형광펜으로 표시해놓고 예산을 챙겨줬다는 이야기

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도 도를 넘어섰다.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막판에 증액 심사과정에서 밀어붙인 4600억 원 가운데 70%가량이 영남지역에 집중된 반면 호남은 겨우 1.2% (2건, 55억 원)에 그쳤다. 충청은 1건에 5억 원이 증액됐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 같은 졸속과 부실, 지역편중 예산은 없었다.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고졸길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함께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예산은 관광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부랴부랴 응급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근본처방이 아닌 땀집식 처방에 불과하다. 국민과 약속한 서민복지 예산의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내놓고 특정지역 편중 예산을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갈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사실을 여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도청별관문제' 합의 철회, 너무 심하지 않나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하송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원회'가 최근 광주시의 합의한 별관 보존방식에 대해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니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시도민대책위는 지난 9월 별관 전체 4층 가운데 3층까지만 철거하고 4층은 연결 통로로 남겨놓자는 방안이 광주시와 합의했으나 이번 철회로 별관 문제가 또 다시 표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책위 측이 철회 이유로 합의안에 대해 문광부 아시아중심도시추진단이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광주시와 합의할 당시 자체 내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추진단은 당초부터 '부분보존'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철회 이유가 될 수 없다. 합의 당시 대책위 내부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책임 소재

는 그 쪽에 있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도청 별관을 둘러싼 합의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도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대책위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만을 도청회를 발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이제 더 이상 공사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었던 공사도 4년이나 지연되면서 불운예산만 2500억 원에 달해 해마다 예산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지 않는가. 이대로 가다간 2014년 개관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책위가 철회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 합리적이며 진일보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별관문제를 놓고 몇 년씩 논란을 벌이는 광주가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

### NGO 칼럼

김용재



하루 300마리 한정판매와 노마진 가격으로 판매까지 일주일 내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 롯데마트의 톱크고 값싼 5000원 치킨은 지난 일주일 포털검색순위 1위에 오르며 국민적 화제를 뿌렸다.

5000원 치킨은 롯데마트가 반값 냉동 피자를 판매해 매출을 올린 경쟁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미끼상품이었다. 치킨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롯데마트는 마치 소비자들을 위한 구원자처럼 비쳐졌다. 반면 동네 치킨집 사장님들은 그동안 엄청난 폭리를 취한 부도덕한 자영업자로 내몰리기도 했다.

골목 자영업군이 사라지고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실현되면 역설적이게도 대기업이 주장해온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진다. 또한 자영업 시장의 붕괴로 실업증가와 구매력 및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경기악화로 이어져 국가재정의 출혈이 커지게 된다. 값싼 치킨구매가 일시적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당장 득이 될지 몰라도 훗날 국민경제와 소비자 모두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기업의 무한 경쟁논리에 빠져들면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은 다 사라져야 할 존재로 전락한다. 우리나라 고용

### 값싼 치킨? 나쁜 치킨!

'나도 통큰치킨 사먹고 싶더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인터넷 후기와 오픈하자마자 연일 매진되는 인기로 소비자들에게 낙점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원가까지 공개하고 공정위 고소까지 추진한 동네 치킨 사장님들의 강력한 대응과 시민경제를 열려하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결국 치킨판매 철회를 선언하였다.

이번 치킨판매를 둘러싼 공방의 본질은 대기업의 기업윤리와 값싼 통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수입입생동과자를 팔고 닭 몇 마리 튀기는 것쯤 별일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파자와 치킨이라는 제품이 수많은 중소기업생상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동일 품목이라는 점이다. 현재 골목상권 파문의 주범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SSM과 5000원 치킨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위사업영역 침범은 제도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기업윤리로 보더라도 힘 없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비틀어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의 판매행위는 누가 보아도 비인간적이다.

값싼 치킨이 무조건 좋은 치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나쁜 치킨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 입장에서 롯데마트의 톱크 치킨은 상도로 보나 상생정신으로 보나 나쁜 치킨이었다. 벌써 피자, 통닭에 이어 다음은 자장면 차례라는 더 이상 우스개가 아닌 우스갯소리가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인터넷 사이트에 초등생 시험정보 판매 자제해야

며칠 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인터넷 결제제를 해탈하고 즐겼다. 게임이 좀 알고 "기말고사가 모래인데 게임 좀 그만 해라"라고 했더니, "공부하려고 해요"라며 나를 잡아끌었다. 무슨 결제제가 싶어 컴퓨터에 가봤더니 인터넷에 떠있는 것은 다름 아닌 족보사이트였다.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족보라고 이름붙인 한해 전 시험문제를 건네 주던 생각이 났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 기출문제 학습자료를 만들어 시험정보를 팔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에게 순수한 학업보다 점수따기만을 가르치는 점수기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학부모들이 나서 가입시켜주고 결제해주며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니 장사가 되는 것이다. 극성 부모들의 점수병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한 건 아닌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 기고

이연



얼마 전 아시아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됐다. 광저우 사회과학원은 광저우시가 아시아게임을 치르기 위해 1220억 위안(19조원)을 썼고, 그 경제 효과는 8000억 위안(1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프로야구 8개 구단의 경제파급효과가 1조1837억이라고 한다. 고용창출효과도 546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과학연구원의 2004년 통계를 보면, 프로축구단 1개 팀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는 1286억 원이다. 지난달 광주에서 시비와 국비 4

억, 5월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시민주 공모는 기상용 선수와 신지에 프로골퍼, 시 체육단체와 축구협회 등 각계각층 1만906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당초 예산을 뛰어넘는 15억20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후원금 모금은 남광건설, 광주은행 등 여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찬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0월 12일 프로축구연맹의 창단 승인을 거쳐 방방모싸를 초대 단장으로, 최만희 감독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팀명칭을 '광주FC'로 확정하고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이어 사부

### 광주 프로축구단 효과는?

억원을 들여 개최한 '2010 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권대회'에 대해 광주발전연구원 경제정책 부가치를 46억원으로 평가했다. 46개국 700여명의 외국인들이 10일 동안 광중에 머무르면서 쓴 돈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들이 광주를 떠날 때 구입한 물건의 운송을 위해 트럭 3대가 추가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2015 하계U대회를 유치한 것도, 금년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는 16일에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창단식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에 사는 지난 2000년부터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기업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삼부축구단을 연구단으로 하여 K리그에 참가해 왔었다. 하지만, 삼부축구단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금년 말 무계약이 만료되어 대도시 중에서는 우리만 프로축구단이 없을 뿐 했다. 이에 145만 시민의 축구단 창단 열망에 힘입어 지난 4월 5일 창단계획을 발표하

국 구성을 완료했으며, 지난 1일부터 내년 K리그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였다.

며칠 전에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가 러시아와 카타르로 결정되었다. 각 국의 치열한 유치경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경기기가 아니라 레저와 관광, 문화를 아우르는 거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광주FC는 외지의 많은 관광객을 광주로 찾아오게 하고, 스포츠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 스포츠산업 발달을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민들은 수준 높은 스포츠를 볼 수 있고, 우리 지역 유행주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광주를 대외에 널리 마케팅 할 광주FC!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뛰고, 더불어 성장 발전하여 그 열매를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145만 시민과 함께 나눌 것이다.

(광주시 체육지원과장)

### 저질스럽고 맞춤형 영터리 TV 자막 개선 시급

TV를 보면서 자막 때문에 짜증을 느끼는 시청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런 자막 공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시청률 높이기 급급한 제작진의 선정주의 때문이다.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와 멋진 화면에 재치있는 자막을 넣어 시청자의 흥미를 돌올 수도 있다. 자막의 긍정적 과인 셈이다.

하지만 요즘 TV자막을 보고 있으면 공해가 떠오른다. 자막을 워낙 남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막 언어도 저질스럽고, 영터리인 맞춤법과 심지어는 정제불명의 언

어월까지 그야말로 공해천국이다.

아예 특정 장면을 연출시켜놓고 자막에 느닷없이 '급당황', '급비호감' 등의 자막을 자극적이고 강하게 집어넣어 시청자의 눈길을 잡으려는 편법이 이제 시청자들도 신물난다. TV화면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러한 공해를 참기는 참으로 어렵다.

무분별한 자막으로 시청자를 현혹시켜 TV제작자의 일방적 판단을 주입시키려 들지 말아주기 바란다.

▲윤현숙·순천시 안동동

### 無等鼓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서민(庶民)의 사전적 의미다. 또 사전은 서민층에 대해 '권력 기관에 있지 아니한 모든 평민들의 계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을 여당이 단독처리할 요즈음 국회 주변에서는 뜨거운 서민예산 논쟁이 한겨울 추위를 무색하게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서민예산을 깎아내렸지만, '실력자'들의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한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서민예산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필수 예방접종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85억원이 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증액분) 400억원이 0원으로 날치기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결식아동 지원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지만 추가 소요를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전국 254개 지역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함에도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공격의 백미는 이른바 '실세예산'이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에 투입된 민원선 예산이 모두 2250억원에 이르른다는 주장이다. 결식아동이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의 부모 등 서민들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대신, 현 집권층 실세들의 지역구에는 예산이 평평 지원됐다는 주장으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실세건 아니건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에 기울고 때때로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발전의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명분과 함께 다가올 선거

에서 미리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정치에서 힘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는 서민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하다. 평소에는 '벼슬'이나 '특권'이 없지만 선거 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서민들이니까...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申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인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대응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